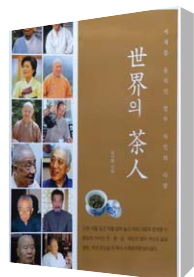




불서읽기 캠페인

### 열두 茶人 정신이 한곳에 모여



세계의 다인 최석환 지음/차의세계 펴냄 | 2만5000원

한·중·일·대만의 열두 차인이 모여다. 1980년대부터 차와 선에 매료돼 한국 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온 저자가 차명인의 삶과 철학을 뒤었다. 차의 정신을 옮길 게 복원한다는 화두로 10여 년간 세계를 돌며 국내외 차인과 다수를 만난 경험을 풀어낸 <세계의 차인>이다.

불백을 잇듯이 다맥의 역사를 증명하는 시대의 명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차와 사람의 관계를 수채화처럼 그린다. 우리시대 차인들의 면모를 복원하고자 한 저자의 목표가 세계를 대표하는 열두 차인의 정신을 오롯이 담았다.

서용 스님(1912-2003)은 '차별 없는 참사람이아말로 다도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차는 참선에서 나왔다. 깍다거니 화(和)·경(敬)·정(淸)·적(寂)이니 하는 말들이 선승의 화두다. 불교에서 깨우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오늘날 보편화된 다도로 유행 됐다'고 전한다.

반선반을 실천하며 선종자를 지켜 온 수산 스님(백양사 방장)을 비롯해 다선임의 전통을 이어 온 중국의 대표 선승 일성 스님(중국불교협회 회장) 등이 지향해 온 차 문화와 만난다. 기연숙 기자

### 사찰미학에 빠져보자



사찰 장식의 품과美 허균 지음 | 다함미디어 펴냄 | 1만2000원

깊은 산속 풍경 좋은 목조 사찰에는 물고기가 왜 있을까? 사찰 건축 장식에 투영된 불보살을 향한 숭앙심의 미학을 탐미한다. 십여 년 동안

한국사찰 구석구석을 돌며 불교 세계와 조우해온 저자의 신심이 완성해낸 사찰 장식미학의 양상과 현황집이다. 사찰 도처에 표현된 장식 조각과 문양들의 조형적 특징을 확인하고 그것이 지닌 상징과 조형성을 고찰했다.

선별된 220여 장의 사찰 장식 미술이 담긴 <사찰 장식의 품과美>는 시문(施紋) 또는 배치된 위치별로 문양을 분류하고 각 장식의 외형적 특징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살핀다. 풍부한 삽화와 해당 장식의 사찰을 첨부해 현존하는 사찰 미학에 일반인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왔다. 대청과 균제의 미를 담은 계단·반야웅선의 선실 불전 등 불교미술에 갖는 장식미·표현기법·송고미·장엄미의 진면목과 명쾌히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돋보인다.

홍익대 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저자는 우리문화연구원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양대전 자문위원·한국민예미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기연숙 기자

유식불교의 거울로 본 하이데거 권순홍 지음/길 펴냄 | 2만8000원

## 실존과 삼성설, 어찌 소통하는가

하이데거의 근원적 시간과 유식불교의 아뢰야식이 '마음'을 접점으로 만났다. 현존재의 실존적 분석론과 존재시성(存在視性)의 분석으로 나뉘어 있는 기초존재론의 구성에 존재 두 개의 마당에서 대화를 전개한다. 시종 일관 반실재론과 반본질주의 맥락에서 근원의 시간과 아뢰야식이 우주 만법의 근원을 이루는 마음이 제각기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히고 실존과 삼성설(三性說)이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논한다. 출발과 귀착의 지점이 각기 다른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과 유식불교가 거울로 대면하며 둘 사이의 동이점을 적극적으로 명료화 한다.



#### #해석학이란 이름의 거울

저자는 "하이데거의 근원적 시간과 유식불교의 아뢰야식을 서로 해석학의 잣대로 거울삼을 때 각각의 명료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근원적 시간을 따로 분석할 때보다 아뢰야식을 거울로 삼아 분석함으로써 시간의 구조·시간적 운동의 양태들이 명료해진 것에 기인한다. '시간의 시간화 운동'을 시작과 끝의 동시성을 뜻하는 순간의 사건으로 풀이한다. 순간적 자기 완결성으로 정리된 종자·현행·혼합·변양의 찰나적 동시성에서 작용하는 아뢰야식을 해석학의 거울로 삼는다.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과 유식불교 사유론의 만남은 '있음'의 근원을 역행한다.

있는 그대로의 우주를 고스란히 담아낸 종교라면 불교는 우주의 넓이와 깊이만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교 중의 종교다. <유식불교의 거울로 본 하이데거>는 실제적인 자아와 실제적인 법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생사의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서원이 불교라고 정의한다. 반면 하이데거의 사유는 존재의 실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실존을 선천적으로 가능케 하는 존재이해의 방식을 발굴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집필하기 이전부터 선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사상에 심취했고 서양 형이상학을 극복할 근거의 동기로 삼았다. 사유의 발에 뿌려진 불교나 도가사상이 열매와 발아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그가 사유해 간 서양 형이상학의 실재론적 궤도는 잃어버린 서양철학의 새로운 근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철학과 다른 하나의 종교가 과연 어느 선까지 융합 가능한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는 독자로서 하여금 또 하나의 흥미가 될 것이다. 기연숙 기자 omiflower@buddhapia.com

#### #현존재의 근원성을 회수하라

### 반영규 선생의 팔순 기념 헌정 문집



꽃비 내리고 반영규 엮음 | 꾸미 펴냄 | 1만2000원

"대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걸림 없이 떠나는 나그네 길." 음악만큼 사람의 정서에 진심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부처님 말씀을 시어로 오선지에 불음의 음표를 그려온 지 40여년, 한국 근현대 찬불가의 선구자 반영규 선생의 불심을 능숙한 단행본 <꽃비 내리고>가 출간됐다. 선생의 팔순을 기념한 헌정 문집으로 11월에 예정된 부타콘서

트의 축하 팽파르다. 월간 <좋은 벗 풍경소리>에 4년 6개월간 기고된 반영규 선생의 한국 찬불가 이야기는 향기로운 법문과 같다. 올해로 찬불가 인생 80주년을 맞은 선생의 열정 또한 청년 음악가의 열정에 견준다. "정기적인 작은 음악회를 열고 싶다.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합창단의 찬불가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소소하게 자주 듣고 즐길 수 있는 찬불가의 장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것이 노장 음악가의 힘찬 바람이다. <꽃비 내리고>는 '봄바람 꽃바람' '나그네' 등 이미 찬불가로 작곡돼 널리 알려진 가사를 포함 총 54편의 찬불가사와 그에 얽힌 뒷이야기를 함께 실었다. 극심한 가뭄을 타고 있는 한국의 불교문화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주는 불법 흥포의 하모니다. 기연숙 기자

### 삶의 지혜를 담은 불교 동화



호미를 먹은 쥐 안도현 글 | 임양 그림 파랑새 펴냄 | 9000원

'아주 먼 옛날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

인류 최초의 동화 <자타카>가 어린이 동화로 다시 태어났다. '연어'의 시인 안도현이 꾸밈없이 수수하게 써내려간 부처님 전생 이야기로, 울음을 지키는 힘과 삶의 지혜를 담은 불교 동화다.

인도 톨비니 동산에서 아이로 태어나 히말라야 설산에서 고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의 삶이 우화로 펼쳐진다. '귀를 기울여 말을 들어주면 나무도 친구가 된다. 자신의 힘을 자랑 하지 않고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지 않으면 누구나 친구가 된다'는 친구 이야기와 '가엾은 사람의 손을 위에 내 손을 얹어 따뜻한 온기를 전해 보자'는 나눔 이야기, '오만한 자는 덩치가 커도 마음이 작고 겸손한 자는 덩치가 작아도 마음이 크다'는 겸손 이야기를 테마로 한다. 총 54여 편의 자타카 이야기 중 시인의 맑은 눈과 맑은 마음으로 가려 뽑은 10편이 담긴 <호미를 먹은 쥐>이다.

자타카 원본은 인도에서 10여 년 동안 불교학을 공부한 재연 스님(실상사 주지)이 번역했다. 동양화를 전공한 일러스트 작가 임양이 밝고 선명한 그림으로 읽는 재미를 더한다. 시인 안도현의 맛깔 나는 문장과 어린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우화 형식의 동화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를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연숙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산을 사랑합니다	월호	미음의 숲
2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3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영화실
4	신심	해인	클리어마인드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돌	원월
7	인과경	현담	선
8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9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10	원력	해인	클리어마인드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연료비 90% 절약 전자파 없고 모터없고 소음없는 무동력 온수매트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 전선이 아닌 온수순환 방식으로 전자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과는 성장하는 어린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금사원단
- 활성탄
- 3단점이 보관
- 완전 방수기능

2009년형 신제품

후불제 판매단행!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가 따뜻하여 아주 좋습니다. 대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침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큼니다.

현금가 : 1인용 218,000원 2인용 248,000원  
지로분할가 : 1인용 : 52,000×5회 / 2인용 : 59,000×5회

대전하우징 전문전화 080-338-3388  
입금계좌 (농협) : 1285-02-011378 이현실